

# 에너지安定供給體制 확립

## 技術革新과 消費節約에 注力

### — 動力資源部 篇 —

動力資源部는 에너지政策의 궁극적 목적을 國民에게 信賴받을 수 있는 에너지政策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國民경제에의 寄與를 극대화하는데 두고 올해에는 이를 위해 최근의 국제 에너지사정의 안정을 背景으로 에너지경제의 구조적 체질개선을 위한 政策定立에 주력함과 동시에 돌발적인 에너지事態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에너지政策을 추구할 계획이다.

동자부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내의 에너지 與件을 최대활용, ①에너지安定供給體制의 鞏固化, ②에너지産業의 技術혁신을 통한 生産性 提高, ③에너지消費節約의 적극 추진, ④石油代替에너지의 사용확대 ⑤文化生活的 증진 ⑥안전관리 및 시설방호강화 등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인데 그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安定供給의 體制의 鞏固化

석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장려금지원 등 다변화 유인시책의 보강으로 공급원의 다변화를 통해 중동의존도를 감축하고, 우발사태에 대비한 수급대책을 강화하며, 착실한 유전개발의 경제적인 대상광구 확보 및 지원제도의 효율화를 기해, 국내에서는 5광구의 탐사와 아울러, 외국회사와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한·일 공동개발구역 5소구에 1개공의 시추를 실시하며, 해외에서도 成功拂 용자지원제도로 민간기업 주체의 콘소시엄 방식진출을 유도한다.

또한, 印尼서 마두라유전개발에 대하여는 가스井은 경제적가채량에 대한 용역평가 실시후 생산준비단계를 추진하고 유전은 이미 발견된 유전의 평가를 토대로 추가 시추를 검토할 계획이다.

석탄부문에 있어서는 국내자원 개발극대화의 방침에 탄광의 大單位化 추진과 지속적인 탐사로

신규 탄층의 발굴에 역점을 두며, 석탄산업의 재투자 촉진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오는 86년까지 2천만톤 생산체제를 유지한다.

일반광 또한 탐사사업의 중점실시 및 광업자금의 우선지원, 광산물 비축사업 확대를 통한 내수 및 수출 유망광물 개발에 중점지원을 하고, 유휴 광업권은 과감히 정리한다.

전력부문은 경제성을 감안하여 신규발전소 건설로 전원개발계획의 적정운용화를 기하고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용과 전력수요관리의 합리화를 통해, 전력을 안정공급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또한 부족한 국내부존자원을 고려, 유연탄·우라늄·동·철·광석등의 광종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탐사 시추의 강화, 용자제도의 확대, 해외자원개발과 국내수요처의 연계강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 技術革新을 통한 生産性 提高

석유부문의 경우는 경질유 수요증가에 대비한 중질유 분해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의 개체를 통한 정유시설 및 공정관리의 고도화를 꾀하고, 수송수단의 개선방안으로 여수—서울(466km) 및 울산—대전(276km)간의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며 물리탐사해석 기술의 자립화와 시추 기술 요원의 양성화를 통한 유전개발 기술을 축적해 나간다.

석탄부문은 채탄기계획의 촉진으로 생산성 및 안전도를 제고하고, 탄광의 경영근대화 유도 및 연탄공장의 시설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며, 일반광 또한 선광 및 분체시설의 확충과, 순도 및 정련기술 향상을 통해, 광산물 부가가치의 향상을 기한다.

전력부문은 전력기술 연구개발 기능의 제도화와